

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 확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원
2023.5.23.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2023.4.18.



사천시 저도어촌계

출처: 경상남도, (2023), 경남도, 체류형 어촌체험기반
조성으로 어촌 활력 증대, 4월 18일 보도자료.

경상북도, 어촌 활성화 거점으로 '이웃어촌지원센터' 개소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은 5월 23일 포항 구룡포에 이웃어촌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이웃어촌지원센터는 귀어학교와 귀어귀촌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귀어인과 귀어희망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청년어업인 및 해녀 육성 ▲어촌 6차산업화 창업교육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어업 등 어업인단체 육성 ▲어촌에서 살아보기 등을 지원한다. 약 9,917m²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센터는 교육장, 요리·가공 실습실,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북도는 이웃어촌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귀어인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어업인과 경북 해녀 육성에 힘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촌 6차산업화 창업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단순히 고기를 잡는 마을에서 벗어나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활력 넘치는 어촌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

경상남도, '2023년 체류형 어촌체험기반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경상남도는 2023년 체류형 어촌체험기반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저도어촌계(사천시)를 선정하여 1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은 어촌마을의 노후화된 빈집과 체험관·폐교 등을 리모델링하여 가족 단위 체험객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형 숙박시설을 마련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에 3년간 개소당 10억 원씩 모두 5개소에 50억 원을 지원하며, 올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법인 또는 어촌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진행하였고, 총 4개 어촌계에서 사업을 신청하였다. 이후 사업 선정을 위해 건축·리모델링과 관광·경영·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체류형 숙박시설 활성화 및 성공 가능성 ▲사업비 투자 및 리모델링 계획의 적정성 ▲프로그램 관리·운영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천시 저도어촌계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향후 저도어촌계는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다양한 어촌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 전 과정에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